

「同じ」의 品詞 轉成에 관한 考察

— 近代資料를 중심으로 —

방운학*

armadess@hanmail.net

Contents

1. 序論
2. 調査資料 및 考察方法
3. 「同じ」의 品詞 轉成의 樣相
4. 結論

Abstract

本稿では、近代資料30種を対象として、日本語の単語「同じ」がその中でどのような活用形を通して品詞転成をしたか考察してみた。「同じ」は、嘗て上代からはシク活用形容詞の形に存在していたが、形容動詞に転成し始めたのは明治後期であった。言文一致がなされた後は、現在のような活用の形容動詞に定着してきた。形容動詞に転成した最も大なる理由としては、語幹の独立性によって他の単語との結合が優しかったとすることと、形容詞の持たぬ文法的、或は意味的機能を新しい品詞が担う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と推定される。しかしながら現代日本語にも「同じな」のような活用形が存在しないように、「同じ」は完全な形容動詞の活用をせず、形容詞の形態と形容動詞の形態を共有している。本稿では「同じ」という単語がその品詞的な面からどのような変化を通して今の形態になったのかを分かるようになった。

Key Words : 「同じ」、シク活用形容詞、形容動詞、品詞転成

1. 序論

現代日本語, 특히 韓國의 日本語教育에서는 日本語單語「同じ」의 終止形이 대체로「同じだ」라고 하는 形容動詞의 형태로 파악되며, 그 連体形은 다른 形容動詞의 活用形처럼 語幹에「な」가 붙어 만들어지는「同じな」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同じ」가 되는 사실로서, 이는 日本語 文法上 일종의 예외로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본래「同じ」는 形容動詞의 형태가 아닌 シク活用形容詞로 활용되었으며, シク活用形容詞「同じ」의 語幹「同じ」에「だ」가 붙어 오늘날과 같은 形容動詞의 活用の 種類를 갖게 된 것은 近現代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本稿에서는「同じ」가 形容詞에서 形容動詞로 轉成되어 가는 과도기적 시기를 메이지(明治) 후기로 상정하고, 각 문헌에서 등장하는「同じ」의 활용방식을 예로 들어 당시의 변화양상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선, 「同じ」의 品詞에 대해 각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onaji. 1, Vonaji coto. ヲナジ. または, ヲナジコト(同じ. または, 同じ事).

(『邦訳 日葡辞書』, 岩波書店, 1980)

おな・じ【同じ】[形シク活] ①同一であるさま。②同様なさま。変わらない。

(『古語大辞典』, 小学館, 1983)

おな・じ【同じ】[形シク] 終止形または連体形には「おなじい」の形も用いられる。①主として連体修飾語に用いられ、別個の二つの事物が、その存在し実現する場所や時間、また、その対象とする事物や属する範疇などの点で共通している意を表わす。②「おなじき」の形で、前に述べたことと共通する事柄について、記述の繰返しをさける言い方として用いられる。

(『時代別国語大辞典 室町時代編一』, 三省堂, 1985)

おなじ【同】(「おなし」とも) ①[形動](形容詞「おなじ」の語幹に「だ」が付いて形容動詞になったもの。「おなじな」は「同じなのだ」のような場合に用いて、体言に続く時には語幹「同じ」が用いられる)形容詞「おなじ(同)」に同じ。②[副詞](仮定の「なら」と呼応して用いられる。古くは「を」を伴って同様の意を表わす場

1) 『日本国語大辞典 第二版 第二巻』, 小学館, 2002, pp.1292~1293

合がある)どうせ。どっちみち。

(『日本国語大辞典 第二版 第二巻』, 小学館, 2002)

おな・じ 【同】[形シク](おなし)とも。体言に続くときには、「おなじ」と「おなじき」の二つの活用形が用いられた) ①一つのもが(時間の経過や状況の違いにもかかわらず)不変である。変わらない。同一である。②二つ以上の物事が共通性を持っている。二つ以上のものの動作、状態、程度などに違いがない。共通の様相、状況を呈する。同様である。③(特に連体形で用いて)文脈上先行する特定の部分を指示する。前述の語を繰り返す代わりに用いる。

(『日本国語大辞典 第二版 第二巻』, 小学館, 2002)

위와 같이 「同じ」는 제시된 사전 및 그 活用形에 따라서 形容詞, 形容動詞, 副詞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形容動詞는 上代에 아직 미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어력이 충분하지 못한 形容詞의 어휘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ナリ活용이 성립되었다고 한다. 「同じ」 또한 上代에 쓰이고 있던 단어이니만큼 現代語에 서처럼 形容動詞나 名詞에 「だ」가 접속된 형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이미 「同じ」가 形容動詞가 아닌 形容詞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되며, 그 活用の 種類는 シク活用形容詞이었다.

上記의 내용에서 「同じ」는 『邦訳 日葡辞書』 『古語大辞典』 『時代別国語大辞典 室町時代編一』에서는 シク活用形容詞만으로 나타나 있으며, 『日本国語大辞典 第二版 第二巻』에서야 形容動詞라는 品詞가 제시되어 있다. 위 사전들의 성격들로 미루어 볼 때 近現代 日本語를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전에서는 「同じ」가 形容動詞로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일부로서 「同じ」가 現代 日本語의 形容動詞 活用の 原形인 「ナリ」 혹은 「タリ」와 결합하여 「同じなり」, 혹은 「同じたり」라고는 사용된 예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로서도 알 수 있다.

従來, 「同じ」의 語誌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伊牟田經久³⁾, 辛島美絵⁴⁾ 등이 있지만, 이 선행 연구들은 그 대상을 時代는 鎌倉 이전으로, 資料는 仮名文

2) 佐藤喜代治編(1982) 『国語学研究辞典』 明治書院, 1982, p.300

3) 伊牟田經久(1968) 「平安時代仮名文学の「おなじき」の用法」 『國語學』 74, pp.25~38

4) 辛島美絵(1997) 「仮名文書の形容詞(一)」

에 한정하였으며, 「同じ」의 連体修飾形인 「同じ」와 「同じき」에 대한 양자비교 혹은 「同じ」의 사용빈도에 대한 조사에 그쳤다. 따라서 シク活用으로서 사용되는 「同じ」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近現代에 이르러 어떠한 과정을 거쳐 現代 日本語에서의 形容動詞와 같은 형태가 갖추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 考察하는 것이 바로 本稿의 목적이다.

2. 調査資料 및 考察方法

본고에서는 近代에 들어와서 シク活用形容詞 「同じ」의 語幹 「同じ」에 「だ」가 붙어 오늘날과 같은 形容動詞의 活用形을 갖게 되었다⁵⁾는 사실에 의거하여 近代의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메이지(明治) 후기에서 다이쇼(大正) 초기까지 35년간의 資料 30種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각 資料名 및 刊行年度는 다음과 같다.

- | | |
|----------------------|-----------------------|
| [1] 獨逸日記(1883) | [2] 柵草紙の本領を論ず(1889) |
| [3] 色懺悔(1889) | [4] 舞姫(1890) |
| [5] 紅子戯語(1891) | [6] 三人妻(1892) |
| [7] 卽興詩人(1892) | [8] 傍觀機關(1893) |
| [9] 洋学の盛衰を論ず(1902) | [10] 金色夜叉(1902) |
| [11] 病骨録(1904) | [12] 野菊の墓(1906) |
| [13] 仮名遣意見(1908) | [14] 半日(1909) |
| [15] キタ・セクスアリス(1909) | [16] 長谷川辰之助(1909) |
| [17] それから(1909) | [18] 花子(1910) |
| [19] 食堂(1910) | [20] 普請中(1910) |
| [21] 妄想(1911) | [22] 不思議な鏡(1912) |
| [23] かのやうに(1912) | [24] 興津彌五右衛門の遺書(1912) |
| [25] 冬の王(1912) | [26] 我百首(1912) |
| [27] 歴史其儘と歴史離れ(1912) | [28] 阿部一族(1913) |
| [29] なかじきり(1917) | [30] 禮儀小言(1918) |

5) 前掲書(1), p.1293

考察方法으로는 위의 資料 안에서 「同じ」가 등장하는 용례를 추출한 뒤, 각 용례가 活用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語幹形, 形容詞型 및 形容動詞型으로 나누었다. 語幹形은 終止形으로 사용되어 文을 맺는 형태이며 「同じ」 그 자체로 活用하는 것이다. 形容詞型은 シク活用形容詞로서 未然形(「同じから」), 連用形(「同じく」), 連用形の 우音便形(「同じう」), 連体形(「同じ」「同じき」), 終止·連体形이 合一化된 後の 終止形 및 連体形(「同じい」), 助動詞와 결합될 때의 連体形(「同じかる」), 已然形(「同じけれ」)로 분류하였다. 形容動詞型은 中止的 連用形(「同じで」), 副詞的 連用形(「同じに」), 終止形の 普通體(「同じだ」「同じじゃ」), 終止形の デス體(「同じです」), 終止形の 推量形(「同じだろう」)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形容動詞型에서의 連体形은 「同じな」라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편의상 形容詞型的 連体形과 동일하게 간주하였다.

3. 「同じ」의 品詞 轉成의 樣相

「同じ」는 上代에는 기본적으로 シク活用形容詞로 活用하였으며, 語幹 자체로 文을 맺거나, 語幹만으로 體言 및 體言에 준하는 단어를 수식하였다. 또한 シク活용을 하였으므로 體言을 수식할 때에 「同じき」라는 형태도 취하였는데, 「同じ」의 連体修飾形인 「同じ」는 和文에, 「同じき」는 漢文訓讀系에 많았다⁶⁾. 또한 鎌倉時代에 들어 당시대의 漢文訓讀體의 영향으로 인하여 シク活用の 連体形을 그대로 살리는 「同じき」와 같은 連体形이 많이 등장하였다. 이는 歷史物, 軍記物 등에서 주로 동일한 낱자를 나타낼 때에 자주 사용되었다. 아래의 예문을 보면 「同じ」와 「同じき」가 上代 당시에는 특별한 구조적 차이 없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공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同じ青色に、蘇芳、綾の袴、綾の搔練の裊一襲、袷の袴著たる童、髮丈と等しくて、年十五歳よりうち、丈等しく、姿同じき十人。(宇津保物語)

6) 前掲書(2), p.25

鎌倉時代の 문헌에는 위의 兩者 외에 「同じかる」라는 連体形도 다소 등장 하나⁷⁾, 江戸時代까지는 오직 形容詞의 형태로만 쓰이고 있으며, 語幹 자체로 文을 맺는 형태가 많고, 또한 전체적인 活用形 중에서는 語幹이 그대로 連体形으로 活用을 하여 체언을 꾸미는 용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江戸時代の 資料에는 철저하게 シク活用으로서의 「同じ」가 活用되고 있으나 近代에 접어들면서 「同じ」 자체는 하나의 語幹으로 인식이 되고, 그 語幹 뒤에 「だ」가 붙어 새로운 형태의 活用語가 등장하였다. 아래 <표>는 上記의 近代資料 30種이 문헌에서 등장하는 活用形의 용례를 나타낸 것이다.

近代資料 30種에 등장하는 「同じ」의 活用形

資料	活形態	語幹		形容詞型						形容動詞型					
		同じ/終止	同じから	同じく	同じう	同じ/連体	同じき	同じい	同じかる	同じけれ	同じで	同じに	同じだ	同じじゃ	同じです
[1] 獨逸日記(1883)				1											
[2] 柵草紙の本領を論ず(1889)						2									
[3] 色懺悔(1889)				1		5									
[4] 舞姫(1890)				1											
[5] 紅子戯語(1891)						1									
[6] 三人妻(1892)	2	1	5		17										
[7] 卽興詩人(1892)	4	4	11	3	22	7		1	1						
[8] 傍觀機關(1893)					1										
[9] 洋学の盛衰を論ず(1902)			1	2											
[10] 金色夜叉(1902)	2		4	1	17	8		3			1	1			1
[11] 病骨録(1904)											1				
[12] 野菊の墓(1906)	1				4		1			2		2			
[13] 仮名遣意見(1908)					2										
[14] 半日(1909)					1										
[15] キタ・セクスアリス(1909)					22										
[16] 長谷川辰之助(1909)					1										
[17] それから(1909)	2		1		55						2	2	1		1

7) 前掲書(2), p.25

資料	活形態	語幹 同じ/終止	形容詞型							形容動詞型						
			同じから	同じく	同じう	同じ/連体	同じき	同じい	同じかる	同じけれ	同じで	同じに	同じだ	同じじゃ	同じです	同じだろう
[18]	花子(1910)										1					
[19]	食堂(1910)				5											
[20]	普請中((1910)				2											
[21]	妄想(1911)				1											
[22]	不思議な鏡(1912)				2											
[23]	かのやうに(1912)		1		3											
[24]	興津彌五右衛門の遺書(1912)				2											
[25]	冬の王(1912)				2											
[26]	我百首(1912)	1														
[27]	歴史其儘と歴史離れ(1912)		1													
[28]	阿部一族(1913)				8											
[29]	なかじきり(1917)		1													
[30]	禮儀小言(1918)			1		1										
計		12	6	27	7	175	16	1	4	1	2	5	5	1	1	1
小計		249							16							
累計		265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語幹 자체의 連体形으로 사용되는 「同じ/連体」가 압도적으로 많은 용례를 보인다. 現代 日本語에서 「同じ」의 連体形이 「同じな」가 아닌 「同じ」인 원인 또한 從來 「同じ」가 사용된 대부분의 용례가 連体形으로 쓰인 「同じ」 그 자체였기 때문에 별도의 새로운 형태가 불필요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同じ」는 또한 1900년경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에는 形容詞型으로, 이후에는 形容動詞型으로 주로 活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선 形容詞型으로 活用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否定을 나타내는 「ず」「で」「ざる」에 붙을 경우 「同じから」라는 未然形이 사용되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否定 표현방식은 資料[29]에

까지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1900년대에 들어서도 「同じ」는 당시까지 形容詞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 「ず」에 접속되는 경우(未然形)>

[6] 白髭しらひげのは普通ふつうの芸者げいしやと心性こころさま同じおなからず。(三人妻, 1892)

[7] されど此情は嘗てアナンチャタの為に発せしと迥に殊にて、又ララに対し て生ぜしとも同じおなからず。(即興詩人, 1892)

< 「で」에 접속되는 경우(未然形)>

[7] 前の事ありしより、我が夫人を見る目は昔に同じおなからで、その豊むたかなる肌、
(即興詩人, 1892)

< 「ざる(ざり)」에 접속되는 경우(未然形)>

[29] しかしわたくしの伝記を作るのと、支那人が史を修めたのとは、其動機に 同じおなからざるものがあるかとおもふ。(なかじきり, 1917)

連用形の 경우에는 주로 「~く」의 형태로 副詞的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 중 「~く」는 ㄱ音便化되어 「~う」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 「く」에 접속되는 경우(連用形)>

[1] 今より後は余と同じおなくホフマン師の門下たるべし。(獨逸日記, 1883)

[3] 同じおなくは捨すつる命いのちならバ。(色懺悔, 1889)

< 「う(く)」에 접속되는 경우(連用形)>

[9] 他の自然学若くはこれと研究法を同じおなうする哲学に従事する者は、或は姉崎氏と洋行に関する意見を同じおなうすること能はざるべしと。(洋学の盛衰を論ず, 1902)

또한 「同じ」가 語幹 자체로 文을 맺거나 인용문 안에서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문을 맺거나, 인용문으로서 간주되는 경우(終止形)>

[7] 首を鉄籠中に置くことは同じ。(即興詩人, 1892)

[26] 脈のかず^{なむたち}汝^{おいびと}達喘^{くすし}ぐ老人に同じと薬師云へど信ぜず(我百首, 1912)

「同じ」가 シク活用の 形容詞가 아닌 별도의 品詞로 인식이 된 이유로서는 江戸時代부터 進行되어 온 ク活用·シク活用 形容詞가 イ活用 形容詞로 전환되어 온 것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다른 形容詞들은 대체로 ク活用·シク活用の 連体形이 「~キ·~シキ」이었으며, 이들이 「~イ·~シイ」로 전환되었다. 용례는 극히 적지만 「同じき」의 경우에도 「~シイ」의 형태로 連体形을 보이기도 하는데, 문헌에서 직접 드러난 형태는 아래 <連体形>의 예문 [12]와 같다. 또한 連体形에는 「同じ」「同じき」 이외에도 「同じかる」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뒤에 助動詞 「べし」를 수반하기 위함이다.

<「き」에 접속되는 경우(連体形)>

[7] 其曲は嘗て此地に來りしとき舟中にありて聞きしと同じき恋の歌なり。(即興詩人, 1892)

[30] そしてその為す所が多数と同じきことを得なかつたのである。(禮儀小言, 1918)

<「い(き)」에 접속되는 경우(連体形)>

[12] 煤色と紺の細かい弁慶縞で、羽織も長着も同じい米沢紬に、品のよい友禪縮緬の帯をしめていた。(野菊の墓, 1906)

<「かる」에 접속되는 경우(連体形)>

[7] 私は世には棄てられ候へども、聖母は私を護り給ふに同じかるべく候。(即興詩人, 1892)

또한 뒤에 助詞 「ども」를 수반하여 逆接條件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けれ」에 접속되는 경우(已然形)>

[7] その曲は偶々アヌンチャタがチドに扮して唱ひしものと同じけれども、その力を用ゐる多少と人を動す深淺とは、(即興詩人, 1892)

이상과 같이 「同じ」가 形容詞型로 사용되는 용례가 다수 존재하나, 上記 <표>에서 나타나듯이 1900년경 이후에는 「同じから」의 未然形과 「同じかる」의 連体形, 「同じけれ」의 已然形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모든 活用形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왔던 「同じ」가 점차 形容詞로서의 기능을 잃어갔다는 사실로 추정된다.

1900년경 이후에는 「同じ」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는데, 語幹 「同じ」에 「だ」 또는 「に」가 접속하여 形容動詞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들이다. 이는 語幹 자체가 終止形으로 文을 맺는 경우가 많아, 語幹이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어 뒤에 다른 말들과 접속하기가 수월하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だ」에 접속되는 경우>

[12] 「民子とお前とは兄弟も同じだ、お母さんの眼からはお前も民子も少しも隔てはない、仲よくしろよといつでも云ったじゃありませんか」(野菊の墓, 1906)

언문일치가 최초로 사용된 문헌인 『浮雲』 이후로는 「同じ」의 品詞 轉成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だ」의 접속 이후, 그 活用形인 「です」나 「で」, 혹은 「である」로의 유추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です」에 접속되는 경우>

[10] 「同じですよ。さうは思ひませんか。で、貴方の悔悟されたのは善い、これは人として悔悟せんけりやならん事。(金色夜叉, 1902)

<「で」에 접속되는 경우>

[12] 親というものは何処の親も同じで、吾子をいつまでも児供のように思うている。(野菊の墓, 1906)

< 「である」에 접속되는 경우 >

[17] 言語動作は何処へ出ても同じであつた。(それから, 1909)

[17] ヴァイオリンも少し稽古したが、この方は手の使い方がむずかしいので、まあ遣らないと同じである。(それから, 1909)

< 「だろう」에 접속되는 경우 >

[17] どうせ誰を持って行っても気に入らない貴方なんだから、つまり誰を持たしたつて同じだろうつて云う訳なんです。(それから, 1909)

위의 예문들을 보면 「同じ」에 「だ」가 붙어 형태 자체는 現代語의 形容動詞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同じだ」뿐만 아니라 「同じです」「同じで」「同じである」「同じだろう」 등의 형태로도 활용되어 오늘날의 形容動詞와 같은 活用形을 갖추어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同じ」가 하나의 새로운 品詞로써 다각도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に」에 접속되는 경우 >

[16] こんな不束な者でも、同じに生れた人間一人が、貴方の為には全て奴隷のやうに成つて、(金色夜叉, 1909)

[11] 服めば服む程量を増さなければ、利かなくなるのが此薬の常、其を毎も同じに利くやうに服まうと為るには、勢ひ漸次分量を増さなければならぬ。(病骨録, 1904)

[18] 臆がしつかりしてゐて太いので、関節の大きさが手足の大きさと同じになつてゐます。(花子, 1910)

그 중에서도 위의 예문들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 당시까지의 「同じ」의 連用形은 シク活用로서의 「同じく」만이 사용되었지만 다른 形容動詞의 活用形에 대한 영향으로 「同じに」가 보인다. 이는 形容詞 「同じ」가 이미 形容動詞의 完벽한 活用形을 모두 갖추게 되며, 새로운 品詞로서의 「同じ」가 등장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4. 結論

이상으로 近代資料 30種을 대상으로 그 안에서 「同じ」가 어떠한 活用形을 지니어 品詞의 轉成을 이루어 왔는지 考察하였다. 「同じ」는 원래 上代부터 シク活用の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그것이 形容動詞로 轉成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明治) 후기를 기점으로 하였고, 언문일치가 일어난 후에는 오늘날과 같은 활용을 하는 形容動詞로 정착이 되었다. 形容動詞로 轉成이 된 가장 큰 이유로서는 그 語幹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다른 單語와의 결합이 수월하였으며, 形容詞가 갖지 못하는 文法的, 意味的 기능을 새로운 品詞가 담당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現代 日本語에서도 「同じな」와 같은 활용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同じ」는 완전한 形容動詞의 활용을 하지는 않으며 形容詞의 형태와 形容動詞의 형태를 공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同じ」가 그 品詞적인 면에서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었다.

금후는 위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同じ」가 形容詞보다 形容動詞로서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大正 이후의 더 많은 資料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日本国語大辞典 第二版 第二卷』, 小学館, 2002. pp.1292~1293
 伊牟田経久(1968) 「平安時代仮名文学の「おなじき」の用法」 『國語學』 74, pp.25~38
 佐藤喜代治編(1982) 『国語学研究辞典』 明治書院, p.300
 辛島美絵(1997) 「仮名文書の形容詞(一)」

- ❖ 투고일 : 2006. 6. 30
- ❖ 심사일 : 2006. 7. 31
- ❖ 심사완료일 : 2007. 2. 15